

창간 26주년

미술시대

MISOOLSIDAE

7/8

2015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66

CHONG EUN-MI

Chung Chang-Sup, Song Chang-Ae
Kim Young-Mi, Cho Jeon-Hwan





3개의 패널로 구성된 대형 회화 작품 <djswpsrkdjeldptjandjtdmfjdjEjgrpdjEjgksdldbhf 언젠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는 1999년 시작된 박미나 작가의 덩벳 회화의 연장선 상에 있다. 덩벳 회화는 컴퓨터에 일반 문자를 입력했을 때 얻게 되는 그림 서체를 이용한 박미나의 대표적 회화 시리즈로 의미가 있거나 없는 일반 문자를 입력해 얻은 그림 서체를 임의대로 재배치하고 중첩해 다이어그램을 디자인한 뒤 여기에 색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이번 신작 회화에는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한 유채색 6가지 이상을 섞어 만든 36가지의 혼합색으로 다이어그램이 채워지고, 이 36가지의 색은 색칠 공부 드로잉으로 확장되어 작가가 그 동안 수집해온 어린이 학습용 색칠 공부 도안에 옮겨져 별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채운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침과 동시에 문화적 상징, 사회적 통념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색칠 공부 도안에 기존의 지시 체계를 무시한 채 작가 자신이 설정한 룰대로 색을 채우는 색칠 공부 드로잉 시리즈는 주제, 형태, 그리고 색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여러 회사에서 양산되는 물감, 색연필, 볼펜을 수집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채워 넣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더웬트(Derwent)사의 그래파이틴트(Graphitint) 24색 색연필로 색칠 공부 도안에 달 형상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로 줄로 채워 넣은 <24 Grey Drawings>와 별 형상이 있는 색칠 공부 도안에 크레머 피그먼트(Kremer Pigmente)사의 펄 수채물감 14색을 사용한 <And Sparkling Stars!>를 선보인다. 특정 사회나 시대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기본색의 개념에 대한 작가의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드로잉은 제조 회사가 제시하는 원상태의 색을 보여줌으로써 색의 레디메이드, 기성품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그 동안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온 작가의 두 가지의 작업 체계(덩벳 회화와 색칠 공부 드로잉)가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로, 언어를 기호로 바꾸고 그 기호를 색과 조합하면서 기존의 언어와 기호, 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보여 주고자 하는 기존 인식 체계의 전환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회화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을 통해 전통적 재현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읽기 방식을 연구하여 회화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박미나의 이번 개인전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관념화된 회화가 아닌 새로운 접근의 회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미나

24 & 36 Grays

2015. 7. 29 - 8. 29

갤러리엠 (02-544-8145)

◀ djswpsrkdjeldptjandjtdmfjdjEjgrpdjEjgksdldbhf 언젠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 200×450cm
· Acrylic on canvas
· 2015

▶ Derwent Graphitint-01 Port
· 33×25.5cm
· Colored pencil on coloring pages
· 2015